

삼성전자, LCD 매출 21개월째 1위

2007년 1월 12억5000만달러 기록 ... 대형제품 풀 라인업 구축으로

삼성전자가 LCD 매출에서 21개월 연속 세계 1위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 1월 LCD 전체 매출 12억500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21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의 1월 매출은 2006년 12월에 비해 5%,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으며, 대형 패널도 11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대형 와이드 모니터 및 40인치 이상 TV용 패널의 판매 증가로 전체 판매면적이 증가했고, 대형제품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ASP(평균 판매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월 대형제품 평균 판매단가는 약 216달러로 세계 LCD 시장 전체 평균 판매단가(165달러)에 비해 약 30% 높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24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비롯해 70인치 TV용 패널 등을 중심으로 대형제품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8세대 라인 가동에 맞춰 50인치급 이상 TV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로는 한국기업들의 1월 매출이 전월대비 약 7% 증가한 반면, 타이완은 6% 감소해 국가간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6>